



제목	Image and Presence: A Christological Reflection on Iconoclasm and Iconophil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tan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12. 12.
저자	Natalie Carnes
출판도시	Stanford
페이지수	233
ISBN 또는 ISSN	978-1503604223

내용 요약

이 책은 성상파괴논쟁의 두 대립적인 입장인 성상파괴론(Iconoclasm)과 성상숭배론(Iconophilia)을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다. 저자는 성상파괴론 자체 안에 성상숭배론의 씨앗이 있다고 본다. “성상파괴론을 배제한 성상숭배론은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다. 성상숭배론을 배제한 성상파괴론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모든 이미지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상파괴론의 유형이다. 현존과 부재 사이의 지속적인 부정으로서의 이미지는, 물질적인 형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미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저자는 “그리스도는 나타내기를 부정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예술이론, 사회학, 문학, 철학의 논의를 수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간다. 신학과 미학의 대화인 셈이다.

저자는 마티아스 그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의 ‘이젠하임 제단화(Isenheim Altarpiece)’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부서짐 그 자체를 부순다. 십자가는 폭력이 결정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미지에 대한 사랑과 이미지에 대한 혐오 사이의 경계가 이론상보다 실제로는 더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미지에 대한 정교회, 로마가톨릭, 개신교인들의 교리적 논쟁보다는 그들 사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상파괴론과 성상숭배론 두 입장 모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